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우 영 지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과 독립성,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기제시동기를 측정하였고, SPSS 12.0과 AMOS 5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처음에 가정하였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을 부분매개하는 모델보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경로를 제거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완전매개 수정모델이 더 양호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의 함의와 진로상담에의 시사점 그리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태도성숙, 완벽주의, 자기제시동기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khlee2445@yonsei.ac.kr

직업의 세계가 더욱 폭넓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 시절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진로를 구체화 해 나가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담소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이기학, 조영아, 송소원, 2005). 대학 상담소에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하여 내방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부모나 주변 타인들의 시선과 평판에 대한 의식 때문에 진로를 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기학, 조영아, 송소원, 2005). 이와 관련하여 이현주(2001)는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에 있어서 개인 외적 세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로 결정 과정에 또래나 중요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부모 및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제시동기의 결과물로서의 진로태도의 성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동기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중요 타인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상은 부모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랜 기간 강조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Flett, Hewitt & Singer,

1995; Frost, Lahart & Rosenblate, 1991; 이현숙, 조한익, 2004). Sear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기르고 교육하는 행동에 대한 반응양식이며 방향성을 가진 문화방식이라고 정의하였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 이수옥, 2007에서 재인용)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자녀가 받는 영향은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가 어떠한가 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Schaefer, 1965),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에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해석이라는 상호적 과정을 통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다시 자녀가 외부세계에 대하여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진민희, 1994).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진로에 대한 연구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이다. 진로성숙은 발달적인 관점으로 전 생애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준비와 대처행동을 나타낸다(Rojewski, 1994). Crites(1978)는 진로성숙의 구인을 직업을 선택할 때 능력요인과 태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태도요인의 하위 요인으로는 개입성, 방향성, 독립성, 선호성, 선택과정의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이기학(1997)은 한국 학생들의 진로태도와 관련된 차원은 이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새로이 5가지 차원을 가진 진로태도성숙의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진로에 대하여 얼마나 확고한가에 대한 결정성 차원, 진로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준비성 차원,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독립성 차원,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였을 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성 차원, 개인의 직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 지향성을 나타내는 목적성 차원이 그것이다.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에 대하여 Basow와 Howe(1979)는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라고 한 바 있고, 최효순(2001)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부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지용근(2004, 2005)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여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대학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그에 따라 점차 부모에게서 받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시기(이현주, 2005)이므로 초등학생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초, 중,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내재화된 개인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주어 그것이 내재화된 동기로서 작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매개로 작용하여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내재화된 개인적인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이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이다.

완벽주의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된 주제였지만 완벽주의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는

연구자들 간에 일치하지 않은 채 연구되어 왔다. Hamacheck(1978)는 완벽주의를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정상적 완벽주의는 자신의 완벽주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타인과 자신의 욕구를 향상시키려는 욕구이며 신경증적 완벽주의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부적응적인 욕구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Burns(1980)는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세우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여 개인의 기준 설정과 실수에 대한 염려를 알아보는 병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초기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정의에 대하여 완벽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가 개발되었는데 Hewitt와 Flett(1989)의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MPS-H)가 그 대표적인 척도이다. 이 MPS-H는 적응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면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써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는 구별되는 장점을 가진다(Hewitt & Flett, 1989). Hewitt과 Flett(1990)은 MPS-H가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뉜다고 하였는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에게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높은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와 성취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자존감을 약화시키며 신경증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는 부적응적인 요인이라고 밝혀졌다(Blatt, 1995).

이재창과 최인화(2006)는 완벽주의와 진로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확신성과 미결정 그리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완벽주의 척도는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 (1990)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F)로써 이는 MPS-H와 개념적으로 비슷한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Blatt, 1995). Blatt(1995)에 의하면 특히, MPS-F의 하위영역인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실수염려 차원은 MPS-H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높은 개념적 중복이 있는 영역으로 알려졌다. 이재창과 최인화(2006)의 연구에서 MPS-F의 하위 차원인 부모의 비난, 실수염려 차원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미결정과 높은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진로태도의 성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김은아(1997)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태도와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제시동기는 대인관계나 사회 불안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Leary와 Kowalski(1995)는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사회 불안이 생긴다는 자기제시모델을 내놓았다. 이 자기제시모델에서 타인에게 자신이 의도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자기제시적 관심’이 자기제시동기이다(Leary & Kowalski, 1995). 자기제시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들은 인상감찰, 원하는 산출물의 중요성과 가치, 자기상과 자존심 그리고 인정 추구 등을 들었다. 자기제시동기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개인의 경우에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향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상황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불안함을 느낄 때도 높아진다고 한다(유하나, 2006). 기존에 자기제시동기는 주로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되어온 개념이었지만 진로와 관련하여 연구할 때에도 좋은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개인은 진로를 선택할 때 타인의 기준에 부합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직업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인 독립성, 목적성과 특히 더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직업가치를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에 둘수록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제시동기는 부적응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주의적으로 자신을 내보이려 한다(Hewitt 등, 2003)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유사하다. 또한 이 두 개념이 내적 통제성을 주기 보다는 외적인 통제임을 생각해 볼 때 진로태도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자기제시동기는 그러한 높은 기준에 대하여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두 가지 개념은 각각 외적인 통제에 대한 지각과 행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연구되기 타당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양육태도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과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부와 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하여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Lopez, 1989; 박찬주, 1993)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모형의 적용이 더욱 적합성을 가질 것이라 본다. 그래서 우선 부와 모의 지각된 양육태도를 합산하여 모형을 검증한 후 부와 모의 지각된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모형의 재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Y대학에서 심리 교양 및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한 1명을 제외한 126명(남 65명, 여 61명)의 설문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19세(SD=2.31)이었고, 학년 별 분포는 1학년 30.2%, 2학년 27.8%, 3학년 22.2%, 4학년 19.8%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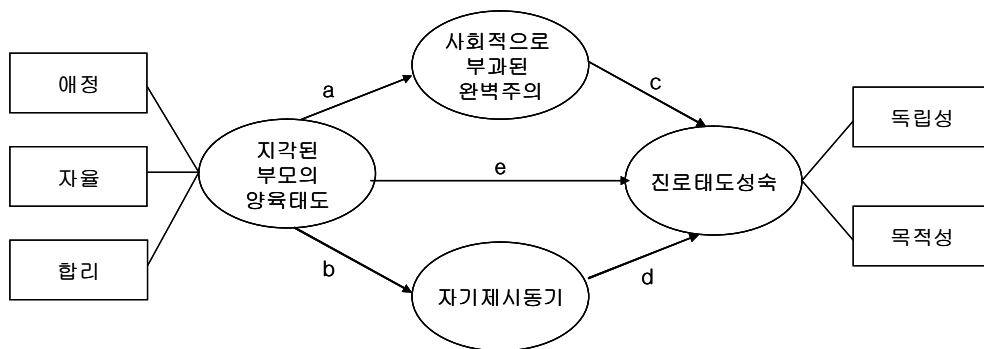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가설 모형

측정도구

우리나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자기제시동기 척도, 완벽주의 척도, 진로태도 성숙척도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오성심, 이종승(1982)이 제작한 ‘양육태도진단검사’를 사용하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의 4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차원이 15개 문항씩 총 6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60개의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따로 평정하였다. 하위 차원 중 애정적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수용적이며 헌신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며, 자율적 양육태도 점수가 높으면 자녀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하여 지나친 제제를 가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또한 성취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더 끈기와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여 높은 포부수준을 달성하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나타낼수록, 합리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일의 동기와 근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하는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Likert척도이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성취적 양육태도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사용된 하위 척도들의 Cronbach's alpha계수는 각각 아버지의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 .84, 자율적 양육태도 .82, 합리적 양육태도 .68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 .64, 자율적 양육태도 .80, 합리적 양육태도 .67 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측정도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rectional perfectionism scale: MPS-H)를 사용하였다. Hewitt와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개 하위차원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높은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15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이 영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 기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자기제시동기 측정도구

자기제시동기는 Leary와 Kowalski(1995)의 자기제시이론에 근거하여 김남재(1998)가 제작한 자기제시동기척도(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SPM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며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

받고 싶어 하며 자신의 인상을 타인이 보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진로에 대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5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가설에 적합한 진로결정의 주체성을 측정하는 독립성 차원 9문항과 진로선택을 통한 가치추구 및 현실적 타협정도를 알아보는 목적성 차원의 8문항, 총 17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영역에서 성숙되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계수는 각각 독립성 차원 .76과 목적성 차원 .85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측정은 학과연구심의위원회(DRO)의 승인을 받아 교내 설문 및 실험 사이트를 통하여 설문참여 학생을 모집하였다. 학생들은 설문 시작 전에 참가자의 권리와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문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약 20-25분가량 설문에 응답하였고 1점의 크레딧 점수를 인정받았다.

자료분석

자료는 측정변수들의 빈도와 기술통계치 및

상관 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였고, 구조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AMOS 5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차원인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과 진로태도의 성숙의 하위척도인 독립성과 목적성 각각은 개별하위 측정변수로서 모형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수가 비교적 적은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합산점수를 사용하는 척도에서의 결측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 상에서 유효응답자의 평균(Series mean)으로 결측치를 변환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위해서는 부와 모의 점수를 각각 Z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IFI(Incremental Fit indices), TLI (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였다. χ^2 은 표본수에 너무 민감하고 영가설의 내용을 너무 엄격하게 간주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평가에 사용하지 않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그 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 제시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기제시동기와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각된 부모의

표 1. 부모의 양육태도 및 주요 변인들간 상관관계

변인	x1	x2	x3	x4	x5	x6	x7
x1	-						
x2	.448 **	-					
x3	.727 **	.581 **	-				
x4	-.236 *	-.328 **	-.275 **	-			
x5	-.110	-.270 **	-.212 **	.474 **	-		
x6	.069	.108	.108	-.305 **	-.413 **	-	
s7	.100	.153	.079	-.368 **	-.339 **	.549 **	-
평균	0.37	0.37	0.45	57.23	92.94	31.92	25.13
표준편차	1.73	1.84	1.87	11.90	21.20	5.02	6.00

* $p < .05$. ** $p < .01$.

주.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태도는 부와 모 각각을 Z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다.

x1.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x2.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 x3.부모의 합리적 양육태도, x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x5. 자기계시동기 x6.진로태도성숙-독립성 x7. 진로태도성숙-목적성

표 2. 아버지와 어머니 별 양육태도 및 주요 변인들간 상관관계

아버지/어머니	x1	x2	x3	x4	x5	x6	x7
x1		.489 **	.678 **	-.224 **	-.080	.027	.042
x2	.451 **		.604 **	-.259 **	-.203 **	.057	.033
x3	.727 **	.580 **		-.254 **	-.200 **	.073	.074
x4	-.236 *	-.329 **	-.257 **		.474 **	-.305 **	-.368 **
x5	-.109	-.271 **	-.212 **	.474 **		-.413 **	-.339 **
x6	.066	.109	.108	-.305 **	-.413 **		.549
s7	.097	.156	.079	-.368 **	-.339 **	.549 **	
아버지 평균	50.09	44.59	47.81	57.23	92.94	31.92	25.13
아버지 표준편차	6.12	6.42	4.94	11.90	21.20	5.02	6.00
어머니 평균	50.97	43.93	47.80	57.23	92.34	31.92	25.13
어머니 표준편차	7.50	6.71	5.27	11.90	21.20	5.02	6.00

* $p < .05$. ** $p < .01$.

주. x1.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x2.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 x3.부/모의 합리적 양육태도, x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x5. 자기계시동기 x6.진로태도성숙-독립성 x7. 진로태도성숙-목적성

양육태도는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과 독립성과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는 모두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 및 독립성과의 강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와 모 각각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산출한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 매개 모형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완전 매개 모형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매개 모형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대안모형으로 이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IFI, TLI, CFI 그리고 RMSEA의 지수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적합도를 보여 적절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각 경로계수는 그림 3에, 이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산출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적인 영향에 대한 완전매개모형 검증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각각 위와 같은 양상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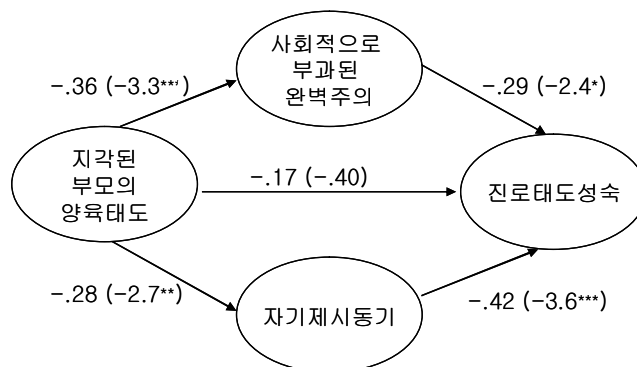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

Model	df	χ^2	IFI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39	70.123	.949	.909	.946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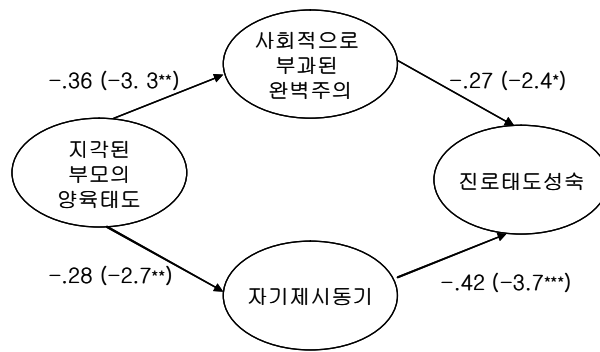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완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Model	df	χ^2	IFI	TLI	CFI	RMSEA
완전매개모형	40	70.291	.950	.914	.948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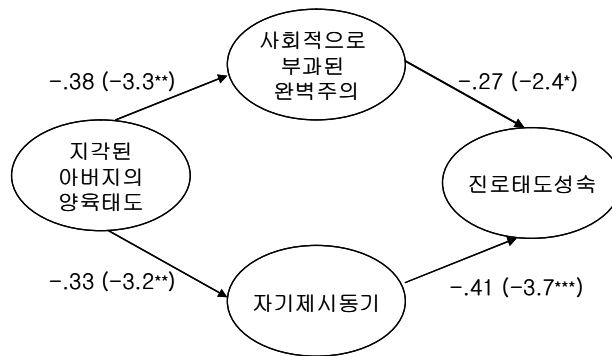


그림 4.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 완전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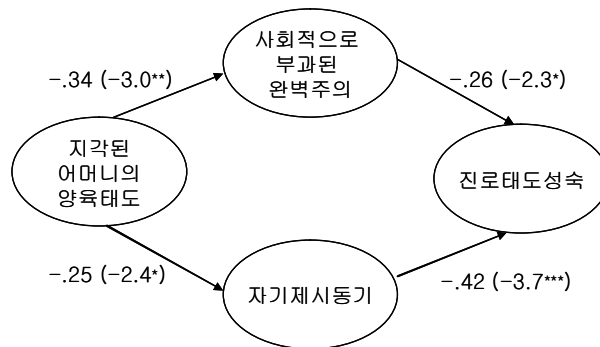


그림 5.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 완전매개모형

표 5. 지각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Model	df	χ^2	IFI	TLI	CFI	RMSEA
아버지	73.074	40	.946	.906	.943	.081
어머니	66.679	40	.956	.924	.954	.073

자기제시동기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 각 경로가 유의미하였고, 모형적합도 또한 모두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양육태도로부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로 가는 경로의 설명량은 아버지의 모델이 어머니의 모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델의 적합도는 어머니의 모델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림 4와 5,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차원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과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을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가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은 기각되었고 가설 2와 3은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정모형으로써 제시한 완전매개 모형에 대하여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검증한 결과 부와 모의 양육태도 모두에서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정리하면, 부모의 양육방식이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의 높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완벽주의적 태도가 감소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낮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결과로써 이들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태도의 독립성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태도의 목적성이 높아지게 됨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부분 매개하여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처음의 가설과는 다르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신, 이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사전 연구들(최효순, 2001; 지용근, 2004, 2005)과는 다른 결과로써 대학생들은 적어도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과 목적성에 있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소년기 이후를 지나면서부터 개인은 부모로부터의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여 부모와의 상

호작용이 감소하게 되고(이시은, 이재창, 2005) 부모에 대한 애착 유대가 약화된다는 연구자들(Steinberg & Silverberg, 1986)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 한다. 대학생들은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영향 받아 길러진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진로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가 위에서 언급했던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에 의하여 길러진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며 개인 내에서 내재화된 특성으로서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청년기 이후에도 이 내재화된 특성이 진로 태도등과 같은 의사 결정에 있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Blatt(1997)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신경증적 완벽주의는 열등감과 관련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적인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이고, 자율적이기보다는 통제적이며, 합리적이기보다는 비합리적일 때 부모의 양육방식은 허용적이기 보다는 권위적이 된다. 권위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된 아이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은데(Baumirad, 1971)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Soenens et al., 2005) 이로써 열등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부모의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느낌으로써 자신의 욕구보다는 우선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자기제시동기가 부모의 영향을 매개하여 진로태도의 목적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에 대하여는 자기제시동기와 함께 많이 연구되고 있는 사회불안의 개념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제시모형에서 자기제시동기는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는데(김남재, 2004),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부모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자녀의 회피행동을 더 강화하며 용기 있는 행동을 더 막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Bruch & Heimberg, 1994). 이러한 사회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부모와 유사하게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개인들의 부모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자녀들이 이를 모델링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있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기회를 더 적게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개인은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도 타인의 시선을 더 중시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른 주체적인 행동보다는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선 그동안 사회불안이나 대안불안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개념인 자기제시동기를 진로태도와 함께 측정하여 이변인이 진로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타당하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데 있다. 진로의 결정이 개인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의 기대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진로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진로태도 성숙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아

동이나 청소년기의 진로모형과 대학생의 다른 진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가장 진지하게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선택을 할 시기인 대학생에게 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에 시사점을 가진다. 진로에 대하여 독립성과 목적성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요구에 민감하여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 갈등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개입에서 자기탐색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 신념과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하여 깨닫게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을 갖고 자기 내면의 욕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자신의 욕구에 더 민감하고 주체적이 되며 그 결과 진로태도에 있어서도 더 성숙해 진다는 것이다. 도정숙(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평등주의적으로 대하는 반면 소유나 보호의 태도를 나타내고, 무관심과 무시를 하는 한편 간섭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비 일관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부모의 기준에 충족하였을 때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적 수용의 인지 도식을 성립시킬 것이다. 그 결

과 자녀는 계속적으로 미달된 부모나 외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반면 자신의 내부에 욕구에 대하여는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욱 일관되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일 때 자녀는 자신의 내면을 더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기준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덜 갈등을 느끼고 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은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남녀의 차이 및 동성 및 이성부모의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 차이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진로 연구에서 성차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흐름(e.g., Betz, 2004)에 따라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사용한 성차의 검증이 필요하겠다. 또한 동성 및 이성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지용근, 2004; Flett et al., 1995)에 따라 이후 확장된 연구에서 그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표본이 서울시내 한 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대학생 집단에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 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표본의 다양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연구된 개념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이후 더 많은 연구에서 확장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제시동기

는 아직 대인불안이나 우울 외의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하여 연구된 예가 매우 적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심리, 사회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들 개념이 진로태도성숙 뿐 아니라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지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남재 (1998).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재 (2004). 자기제시동기와 대인간 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77-695.
- 김은아 (1997). 부모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찬주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우트, 11(1), 1-15.
- 유하나 (2006). 청소년의 자기제시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상담심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조영아, 송소원 (2005). 2005학년도 단과 대학별 재학생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 이기학, 한종철 (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 비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335-349.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 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옥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통제성 및 대인불안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은, 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이재창, 최인화 (2006).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53-872.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현주 (2001).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5(3), 257-280.
- 지용근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1), 106-122.
- 지용근 (2005). 성역할정체감,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8(2), 199-217.
- 진민희 (1994).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성향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순 (2001).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환경 및 개인변인과의 인과분석. 건국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sow, S. A., & Howe, K. G. (1979). Model influence on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3), 239-243.
- Baumirad, D. H. (1971). Current pattern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ist*, 42, 130-136.
- Betz, N. E. (2004).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Brown S. D., & Lent, R. W.(Ed.),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p. 253-277.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 Burns,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 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1.
- Cites, J. O. (1978).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 Monterey, CA. CBT/McGraw-Hill.
- Flett, G. L., Hewitt, P.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51(1), 50-60.
- Frost, R.O., Martin P., Lahart,C., & Rosenblate, R.(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or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O.,Martin P.,Lahart,C., & Rosenblate, R. (1991).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ory and Research*, 15, 469-489.
- Hamacheck(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W., et al.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ism: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303-1325.
- Hewitt, P. L., & Flett, G. L. (1989).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Canadian Psychology*, 30, 339.
- Hewitt, P. & Flett, G. (1990).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423-438.
- Hewitt, P. & Flett, G. (1991). Perfectionism and neuroticism in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3), 335-347.
- Kim, U., & Choi, S.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M. Greenfield & R.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f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227-257). Hilldale, NJ: Lawrence Erlbaum..
- Leary M, R. & Kowaski R. M. (1995).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Rojewski, J. W. (1994). Predicting career maturity attitudes in rural economically disadvantaged yout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 49 - 61.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pp. 552-557.
- Sears, P.S (1965). *Child-rearing Factor related to playing of sex-typed roles*. Staff of the Laboratory of Human Development, Ha-vard Uni.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Goossens, L. (2005). Maladaptive perfectionistic self-representations: The mediation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487-498.
- Steinberg, L., & Siverberg, S. E.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원 고 접 수 일 : 2007. 7. 3
수정원고접수일 : 2007. 9. 16
게 재 결 정 일 : 2007. 11. 20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dergraduates: Mediated b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Young Jee Woo

Ki-hak Lee

Yonsei University

We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s mediated by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 total of 126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a perceived parental attitude questionnaire, two career attitude maturity scales (goal orientation and independence),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upported a full-mediation effects model with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erceived parental attitude, career attitude maturity, perfectionism, self-presentation motivation*